

'DMZ도시' 주민들의 아픈 역사 드러낸 마을박물관



고려한 백화역사박물관 백화역사거리, 고려의 고려, 호우두천 부근에 위치. 고려의 사신과 세종대왕의 거처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터키거리 마을은 DMZ지역에 위치해 있다. 사진=경북문화재단 제공

동두천 거점으로 경기북부 네트워크 박물관 완성시켜야

경기북부 문화로 다시 정의하다

- 1. DMZ지역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공간 조성
- 2. DMZ지역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공간 조성
- 3. DMZ지역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공간 조성
- 4. DMZ지역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공간 조성
- 5. DMZ지역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공간 조성

이처럼 경기도지사가 말하는 '특별한 여행이 존재하는 도시들' 그 중에서도 특히 DMZ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파주와 연천, 권영과 분단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사는 동두천, 포천, 양주, 의정부 등 6개 도시가 어떤 기획이 대안이었다.

경기북부는 경기도에서 도대체 뭐가 라는 질문 이후 술안 고된 끝에 얻어낸 답인, 경기도의 문화적 특성을 구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단순한 범위적 개념에 그칠 뿐 문화적 특성이나 문화 콘텐츠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현은)이 지역자원을 문화의 특성에 따라 묶고, DMZ도시란 브랜드를 탄생시켰다. 특히 단순히 '나눠주고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DMZ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DMZ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위치시킨 사업들을 추진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행정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마치 카다란 나무의 뿌를 견직한 'DMZ'의 속삭임 같기도 했다. 특히 DMZ도시가 고스란히 품고 있었던 카라지 드래곤지 않았던 역사, 별명도 존재하지만 제대로 조명 받지 않아 그 가치를 알지 못했던 그 무엇들. 바로 이 지점을 확인해내고 싶었다고 하면 좋을 듯하다.

우선적으로 주목할 것은 경기문화재단이 거점도시로 삼은 '동두천'과 '연천'이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을 지칭하는 '마을박물관'이었다. 동두천의 어떤 측면이 DMZ도시의 활성화라는 목표를 이루는데 중심축이 될 수 있을까, 마을박물관들은 과연 어떻게 성장하고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지를 파악해보고자 한 것이었다.

음악과 그래피티 아트의 중심, 그리고 '순자문화제'

"한국 록(BOXIC)의 발상지이자, 현무의 K-POP을 있게 한 원동력의 도시. 게다가 90년대 그래피티 아트가 유망하게 남아있는 차이나타운 안 동두천 경기문화재단이 선정한 'DMZ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이상하게 추진하는 사업들의 거점을 동두천으로 삼은 가장 큰 이유는 이 두 가지였다."

그리고 현재 이곳은 '음악'이라는 활력의 요소에 '그래피티 아트'라는 시각예술을 얹고 있는 독특한 모습이다. 필살성 외 세련된 '대중음악'과 '그래피티 아트'의 매력이 자리잡을 날이 대지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DMZ도시 거점으로 삼은 동두천의 장점은 또 있다. 북으로는 연천과 파주가 있고 호천과 양주, 의정부, 일산, 고양까지를 놓고 볼 때 동두천이 중심을 차지한다.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지역도 7곳이나 되고, 가평도 그리 멀지 않다. 경기북부를 위한 관점에서 동두천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거점도시로서 동두천에 대한 탐미적 욕망을 적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난 몇 년 간 다양한 리드에서 계획된 준비들이 실행돼 왔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가파르게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동두천은 지금까지 가지치기만 되던 아예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겼을만큼, 여러 걸음을 통해 알고 있다. 하지만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인식이다. 이제쯤 무리한 명칭도 또 있을 거 같다.

파주 동두천시 문화체육과 주무관은 "지역의 젊은 기획자들은 나만의 개념이 대 선형적으로만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거점도시'라는 용어 대신 '거점생활권'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동두천 사람들의 구체적인 개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용어를 찾아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다양한 매커니즘을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기획을 해가고, 앞으로 동두천의 독특한 문화를 논하고자 할 땐 '거점생활권'이란 용어로 대체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듯하다. 지난 1월 20일 처음으로 개최된 '터키거리마을 순자문화제'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겠다.

최 주무관은 "순자라 첫 의미가 거점생활권 여성 혹은 지역 여성부 여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여러 단위 모임에서 개별한 모임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낙인이라는 점에서 동두천도 발만 다치지 않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제가 열리고 재확인 되어왔으니 지칭, 순자를



연천지역 터키거리마을이 위치한 백화역사거리.

가점도시 동두천 탐미적 욕망 적자 진행

대중음악그래피티 아트 매개로 지라해길 예고

연천 '신남리마을박물관' 백화역사박물관

파주 '평화충전소, 동두천 '터키거리마을' 등

주민들 중심으로 지붕없는 마을박물관 운영

'명소화' 위한 전문가들 지속적 컨설팅 필요

네트워크 형성새로 문화코드 개발도 과제

대문 상에서 출발해서 마을 일대니들이 눈물을 핏구기 시작 했다. 자신의 가슴속 깊이 담겨 있던 용어라기 비로소 분출되는 순간이었다.

이처럼 동두천 터키거리마을박물관은 "순자는 거점생활권 여성들 아래 근간에서부터 활기를 담담했던 여성들의 대표적 이름이라 할 수 있다"며,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 명의로 된, 물론 말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제대로 부각되는 의미가 아니고 터키거리마을이 가진 자신이라는 공존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동두천은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랬다. 그 가운데 가지 생활권 안에서 살고 있었을 뿐이다. 관계를 떠나서 끊어놓는 듯 봐드렸을 때 다시 알고 관계를 꾸민다.

'살아 있는 박물관', 명소화 및 네트워크 형성의 과제

'마을박물관'은 연천 '신남리마을박물관'과 '백화역사박물관', 파주 '평화충전소', 동두천 '터키거리마을' 등 총 4곳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개념명은 각기 다른지만, 주민들을 중심으로 마을만의 특장점을 문화로 관철하고 살아 운영된다. 현재는 같은 모습을 보였다.

이 가운데 연천 '신남리' 백화역사 박물관 부근 100여 명이 모여 달리는 체험의 공간이 열리고 있다. 마을박물관 역시 진행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잊을 수 있도록 구상해 있었다. 자기가 있다면 '신남리마을박물관'의 경우 참가자들이 향이래 파나면 평촌 주민들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자유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백화역사박물관'은 굳이 신분은 아니지만 진행 당시 특별한 공을 세운 마을 어르신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신남리마을박물관'은 2014년 7월 7일에 설립되고 자체를 경영해 세운, 그래서 '뉴 초크 터너'인 보다 나은 이름일 거 같긴 싶지만의 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역사박물관'은 비록



동두천시 문화체육과 최지호 주무관은 동두천생활문화센터 백화역사관을 찾은 김현은 대표, 동두천 터키거리마을을 위한 컨설팅을 받고 있다. 사진=경북문화재단 제공

무엇일지라도 불구하고 전경에 꼭 필요한 여러 가치를 담았던 동네 어른들의 모습과 편두의 흔적을 담아 평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DMZ지역의 특성을 마을박물관 1호인 터키거리마을 수 있는 동두천 '터키거리마을박물관'은 DMZ지역의 경제 속에서 형성된 독특한 명칭을, 비록 어중이떠중이 문화적 특성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주민들과 함께 문화로 승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 지역은 소위 '거점도시'라 불릴 정도로, 박물관은 터키거리마을로 이어져 들어가는 길에 자리잡았다.

파주 '평화충전소'는 원래 대청의 민방위 주민 대대시설이던 것을 새롭게 단장해 문화 공간으로 꾸민 장소이자, 전쟁과 분단을 겪은 주민들의 고난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박물관들은 하나같이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각기 소중함 문화유산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있는 모습이었다. 특히 터키거리마을과 살지도 않을 만큼 아프고 쓰린 것들, 스스로 자책했다고 생각하는 것들까지 직접 꺼내 보여주는 단행본까지 접어든 것으로 보여 기쁘기까지 했다. 사실 그냥 이 자체 안으로도 애가 있는 일이 아닐까 싶다.

지금껏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지켜보며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사람들 관행으로, 재정의 속도 또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해는 어느 정도 가파를 잡았다고 보여지는 만큼, 기존 마을박물관들을 재조리 성실하게 '명소화'하기 위한 정책의 지원과 새로운 마을박물관을 발굴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DMZ의 새로운 문화코드도 만들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해당 사업과 MOU 등을 통한 협의 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도 배울 수 있는 과제일 듯하다.

이름이 가장 특별하다는 것은 권모가림의 지속적인 컨설팅이다. 주민들이 지역을 가장 잘 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명칭에 중시하면서 동시에 박물관의 일을 배워야 하는 것도 어렵고 전문적인 지식의 한계도 부담할 수준을 넘어나가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공간적인 문제로 분방이 있었지만, 이는 일면 부분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DMZ도시 주민들의 삶을 가까이하고 보려는 박물관, 살아 숨쉬는 마을박물관들은 아마도 DMZ지역의 문화적 거점 공간으로 태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무엇보다 규모가 크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역사박물관'은 비록